

주말 금남로에서 '문화 秋 忆'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행사와 '금남로 거리문화축제'가 11일과 주말인 12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의 이번 공연은 12월 초로 예정된 공식 개관에 앞서 진행되는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문화원의 무료공연을 즐길 수 있고 발품만 팔면 줄거운 금

남로 거리문화축제도 풍성하다.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2015 어린이 공예문화축제 행사로 멀티미디어 인형극 '갈갈나무'와 '바상 할머니 이야기' 공연을 비롯해 '드라마 텐트 인 아시아' 프로그램이 11일~12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무료 공연인 '드라마 텐트 인 아시아'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의 전설을 작은 텐트 안에서 듣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필리핀교육연극협회가 마련한 '바상 할머니 이야기'는 주인공 할머니가 책을 타고 날아다니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그리고 있다. 세미뮤지컬인 '갈갈나무'는 주인공 파니가 인형을 잃어버린 뒤 이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우정을 나누는 동심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어린이문화원은 지역 오케스트라 공연,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짜인 가족을

악회도 연다.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해 열리는 '금남로 거리문화 축제'는 12일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동구 전일빌딩~금남로 구간에서 진행된다. 금남로에 마련된 공연무대에서는 재즈 기타공연, 라틴댄스, 통기타 공연을 비롯해 랩댄스, 합창단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정년셀러'들은 행사장에 모두 83개 소형 판매공간을 마련, 드라이플라워, 네일아트, 의류, 가죽공예, 한지공예 등 다양한 문화상품들을 판매한다. 민화그리기, 들꽃자수놓기, 석고 손도장 만들기, 떡매치기 등 다양한 무료 체험행사도 열린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화가추홍씨는 신양호, 정다운, 박성완, 김우중씨 등이 참가하는 금남로 '거리화가전'을 연다. 어린이문화원 공연 문의 062-229-3444~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드라마 텐트 인 아시아(위) 인형극 '갈갈나무'(아래).

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
11·12일 공예문화축제
멀티미디어 인형극 '갈갈나무'
'드라마 텐트 인 아시아' 무료 오페라 갈라 콘서트

금남로 거리문화축제 12일
주홍·신양호... 거리화가전
83곳 청년셀러
재즈 기타공연·라틴댄스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50% 삭감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 삭감폭이 50%로 결정될 전망이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맞춰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성과급은 물론 임금인상률에서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공공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착 노력에 1점, 제도 적합성에 1점을 주고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경영평가 점수를 3점 덜 받으면 S부터 A·B·C·D·E까지 여섯 단계로 나뉘는 등급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면 임직원 성과급이 한

푼도 안 나온다.

정부는 내주의 공공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국립대병원, 국책 연구기관들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일까지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49%까지 올랐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200곳)은 18.5%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모두 101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32%다.

/연합뉴스

'역세 물결' 무등산 정상 10월 3일 개방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이 다음 달 3일 시민에게 개방된다.

광주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동부사무소는 군부대와 협의해 10월 3일 무등산 정상 군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 주변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방구간은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한 뒤 인왕봉, 지왕봉 인근을 거쳐 정문으로 나가는 0.9km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광주시는 탐방객들이 청명한 가을 하늘과 은빛 역세 물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개방 시기와 구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방에는 한국 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가 참가해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영급에 담을 계획이다.

10월 중에는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서 전시회도 연다. 개방 당일 정상에서는 무등산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이 100여 장이 전시된다.

광주시는 개방 구간 주변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를 증편하고 임시 주차장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탐방객들은 무등산 정상이 군부대 영내에 있으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최원길기자 cki@

추석 전 18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올해 180만 가구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지난해 85만 가구의 2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급 현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자녀를 둘 둔 가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40만2000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액수 등 구체적 규모는 국세청에서 다음주 중 확정한다.

/최재훈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교육만 '선진국'

고소득 30개국 비교... 고용·금융중개·부패 등 '하류'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산업)선진국과 비교할 때 '교육은 상급, 나머지는 하류'로 요약되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7일 펴낸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 세계 112개국 가운데 가장 앞선 30개국에 속했으며, 그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포괄적(inclusive)'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이 선진 30개국 가운데 한국은 교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야에서 최하위권이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포괄적 성장'은 단순히 국내총생산(GNP)나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은 한계와 문제가 많으므로 분배와 성장을 병행해야 진정한 경쟁력이 생기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WEF는 보고서에서 각국 경제의 상황을 ▲교육 ▲고용 ▲자산형성 ▲금융중개 ▲부패 ▲기본서비스 ▲재정건정 등 7가지 기본분야와 15개 하위분야로 나눠 140여 종의 지표를 분석, 비교했다. 112개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내에서의 순위를 내고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흔히 (산업)선진국으로 불리는 고소득 상위 30개국 그룹에 속한 한국은 교육 부문에선 1등급(상위 20%)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질적으로 우수하고 공평한 교육 효과를 낳는, 강하고 포괄적"이라고 고 평가했다. 교육 관련 22개 지표 중에서 교육의 평등성은 뛰어나지만 질은 중간수준, 접근성은 중하위로 처졌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선 금융중개(3등급)를 제외하고는 5개 분야가 최하위 또는 중하위 등급 판정을 받았다.

금융중개는 사업에 필요한 돈의 조달을 증대해주는 자본시장 등 금융시스템의 적절성을 뜻한다. 4등급을 받은 고용 부문은 하위 지표 가운데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및 비(非)임금 보상이 최하급으로 나타났고 '생산적 고용' 수준도 낮았다.

세금 관련 법과 제도, 복지 등 사회적 보호를 포함하는 분야인 (국가)재정이전 분야는 4등급으로 평가됐다. 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환경,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율,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 근로자의 주식 보유 및 기업의 이익분배 등을 평가한 '자산형성' 분야는 최하위 등급이었다.

또 뇌물·비자금·지하경제 등과 관련된 기업과 정치의 윤리 수준, 독점적 초과이익이 특정 계층·개인·기업에 집중되는 정도 등을 측정된 '부패' 척도도 최하 등급을 받았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 초혼 | 추천회원 | 재혼 |
|--|---|---|
| <p>의사, 변호사, 의사, 원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빌딩 9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